

KMI 국제물류위클리

2016년 9월 21일 · 제 374호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본부장, 감수 김범중 연구위원

Contents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1. UPS, '온디맨드 3D 프린팅 네트워크' 서비스 아시아로 확장
2. GTO, 다양한 항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투자전략 전환
3. 독일 Hapag-Lloyd사, 냉동화물 운송선사로서 입지 강화
4. 조지아항만공사 8월 컨테이너 처리량 발표

| 물류시장동향 |

1. 러시아 타만 항만, 철도 건설 계약 체결
2. 콜드체인 시장, '16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





물류정책 · 사업동향

UPS, ‘온디맨드 3D 프린팅 네트워크’ 서비스 아시아로 확장

- UPS가 파트너 기업인 패스트 래디우스(Fast Radius)에서 올해 연말까지 UPS의 싱가포르 물류시설에 3D 프린팅 공장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UPS는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기업인 SAP, 3D 프린팅 기업은 패스트 래디우스와 협업하여 올해 5월에 ‘온디맨드 3D 프린팅 네트워크’ 서비스를 미국에서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음
 - ‘온디맨드 3D 프린팅 네트워크’ 서비스는 고객이 패스트 래디우스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3D 프린팅 제품을 주문하면, 속도, 위치 및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에 적합한 제조공장 및 UPS 스토어에서 3D 프린팅 제품을 생산하고 배송까지를 포함함
 - SAP는 UPS의 온디맨드 제조 솔루션 및 글로벌 물류네트워크와 SAP의 공급체인 솔루션을 통하여 3D 프린팅 제품의 주문에서부터 생산, 배송에 이르는 전 단계의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이 서비스를 싱가포르에 확장함으로써 UPS는 “오후 5시까지 고객이 3D 프린팅을 주문하면, 아시아의 주요도시에 24시간 내에 배송” 할 수 있게 될 예정임
- 싱가포르 경제개발청(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의 Lee Eng Keat 물류 국장은 “UPS의 첫 번째 해외 온디맨드 3D 프린팅 공장 설립은 싱가포르가 혁신적인 공급체인 솔루션 개발에 물류기업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밝혔음
 - 또한 Lee Eng Keat 국장은 “3D 프린팅이 잠재적으로 공급체인을 변화” 시킬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가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신규 솔루션 개발을 통해 물류산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3D 프린팅 분야의 산업 전문보고서인 Wohlers Report 2016에서는 3D 프린팅 산업이 2015년 52억 달러에서 2021년 265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고 기술하였음
 - Wohlers Report 2016는 또한 3D 프린팅이 세계 제조업의 5%만 차지한다 해도, 연간 6,40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고 기술하고 있음

자료 : UPS 보도자료, 2016.9.19.

송주미 전문연구원
051-797-4773, jmsong@kmi.re.kr



GTO, 다양한 항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투자전략 전환

- 최근 Drewry가 발간한 보고서¹⁾에 따르면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GTO)들이 수요 둔화, 선박 대형화, 글로벌 얼라이언스 재편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항만 투자전략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GTO들은 성장 기회 모색, 리스크 완화 등을 위해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보다는 M&A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합작투자, 공동 지분 보유 등 다양한 방식의 터미널 소유권 확보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GTO들의 그린필드 투자건수는 2006년 64건에서 2016년 현재 39건으로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중 선사(Carrier)형 운영사들의 그린필드 투자는 소실되었으나, 대신 선사형 운영사들은 M&A와 합작투자로 전략을 전환함
- 하역(Stevedores)형 운영사들은 2017년 3대 글로벌 얼라이언스 재편에 따른 리스크 대응을 위해 선사와의 합작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환적기능에 집중된 터미널들은 선사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리스크 완화를 도모하고 있음
 - 비록 얼라이언스의 터미널 선택이 한 개 선사에 의해서만 주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사를 터미널 주주로 확보하게 되면 얼라이언스 물량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2016년 5월 허치슨은 로테르담 Euromax 컨테이너 터미널의 지분 35%를 China COSCO Shipping 산하 터미널 운영사인 COSCO Pacific²⁾에 매각하였으며, PSA는 지난 6월 싱가포르 Pasir Panjang 터미널의 4개 컨테이너 선석에 대해 CMA CGM과 51:49 합작투자를 발표함
- 따라서 글로벌 환적항만인 부산항의 경우에도 향후 리스크 완화 및 물동량 확보를 위해 신규 터미널 운영사 선정시 얼라이언스 소속 선사와 합작투자 형태의 전략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료 : www.ciw.drewry.co.uk, 2016.9.11.

김은우 전문연구원
051-797-4680, hisgrace@kmi.re.kr

1) 「Global Container Terminal Operators Annual Review and Forecast 2016」.

2) 2016년 2월 COSCO Group과 China Shipping Group의 합병에 따라 COSCO Pacific은 2016년 7월 사명을 COSCO Shipping Ports Limited로 변경함.



독일 Hapag-Lloyd사, 냉동화물 운송선사로서 입지 강화

- 독일 Hapag-Lloyd사는 최근 컨테이너 제조업체인 Carrier Transicold에 5,750개의 냉동컨테이너를 발주했다고 밝혔음
 - 이 가운데 750개의 냉동컨테이너는 20피트이며, 나머지는 40피트로 금년 10월 중에 인수할 예정임
 - 특히 과일과 야채 등 신선화물이 장기간 운송에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1,000개의 냉동 컨테이너에는 공기 중의 산소와 탄산가스의 비율을 거꾸로 하여 행하는 냉장법인 CA장치 (controlled atmosphere)가 장착되어 있음
- Hapag-Lloyd사는 향후 냉동화물 특화 운송선사로서 거듭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지난해 이 선사는 6,000개의 40피트 냉동컨테이너를 발주했으며, 동년 냉동컨테이너 적재 공간이 다수 확보된 1만 500TEU급 신조 컨테이너선 5척을 발주한 바 있음
 - 현재 한국에서 건조 중인 신조 컨테이너선들은 2016년 말 남미/유럽항로에 투입하여 운영될 예정인데, 이들 선박에는 척당 2,100개의 냉동컨테이너 적재가 가능함
- Hapag-Lloyd사 운항이사인 Anthony J. Firmin는 향후 냉동화물 운송분야에서 최대 선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히고,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 운항이사는 Hapag-Lloyd의 운송서비스가 특히 냉동화물 운송 비즈니스가 중요한 남미지역 화물에 적합하다고 지적했음
 - 더욱이 Hapag-Lloyd는 냉동컨테이너 제조업체인 Carrier Transicold와 현재 차세대 냉동컨테이너를 개발 중인데, 이 컨테이너에는 화학 냉매제가 아닌 천연 냉매제인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기술을 도입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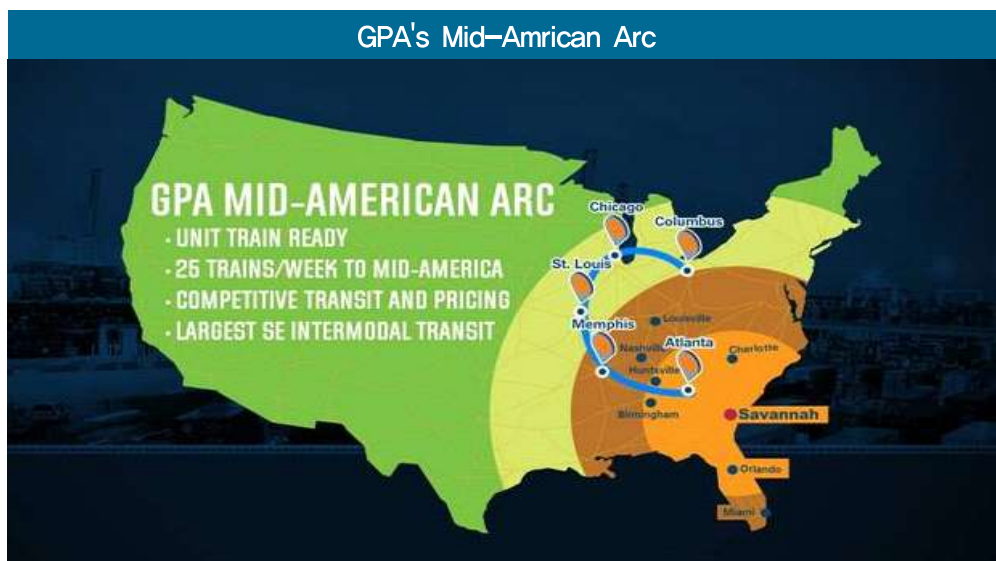
자료 : <http://www.americanshipper.com>, 2016.9.20.

박성화 연구원
051-797-4614, shpark83@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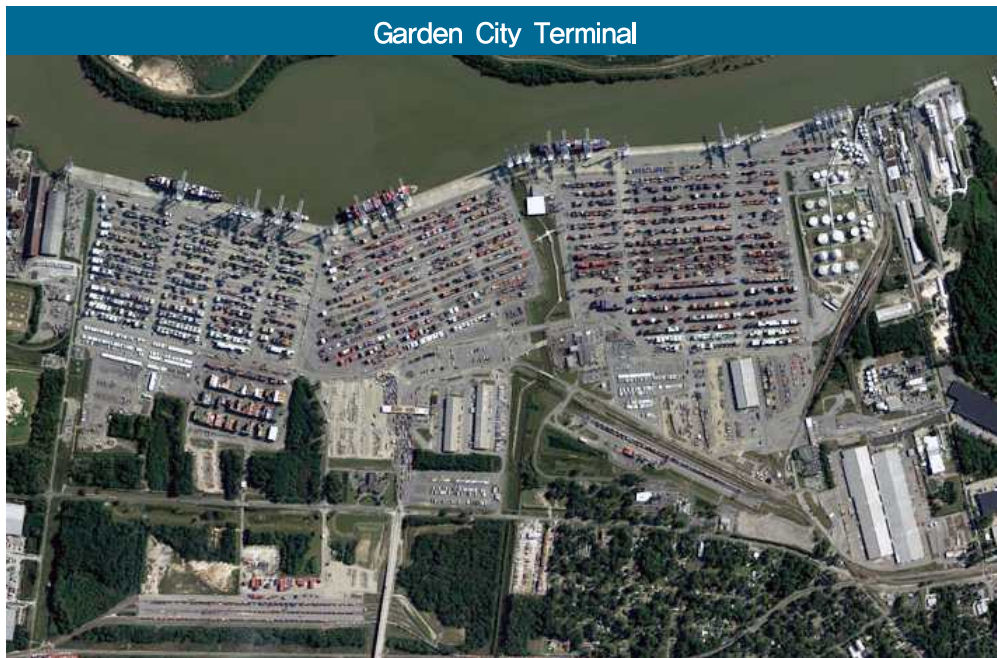
조지아항만공사 8월 컨테이너 처리량 발표

- 조지아항만공사(Georgia port Authority)는 올해 8월 사바나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이 330,846TEU로 전년 동월 대비 5% 증가했다고 발표함
 - 8월 전체 화물물동량은 262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하였음
- 한편 조지아항만공사 사장 Gruff Lynch는 지난주에 발표된 "GPA's Mid-American Arc" 계획으로 동 사(社)가 시장 지배력을 지속하고, 장기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 지난 14일에 발표된 "GPA's Mid-American Arc"는 철로를 이용한 복합운송 발전에 주력한 사업으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사바나항에서 애틀랜타, 멤피스, 세인트루이스, 오하이오밸리 지역까지의 연결을 구상한 계획임



자료 : www.gaports.com

- 또한 Lynch 사장은 Garden City Terminal의 철도를 연장하는 사업을 이번 계획의 주요 사업으로 언급했으며 이 공사는 내년 3월에 시작될 예정임
 - 조지아항만공사 소유의 Garden City Terminal은 미국에서 4번째로 많은 화물량을 처리하며 면적은 485.6ha임
 - Garden City Terminal에 위치한 2개의 레일 야드가 연결됨에 따라 터미널의 철도를 이용하여 연간 약 백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번 프로젝트에는 1억 2,800만 달러가 투입되며 공사 기간은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됨



자료 : www.gaports.com

자료 : <http://www.gaports.com> 2016.9.19.

전우현 연구원
051-797-4615, jwh0321@kmi.re.kr



물류시장동향

러시아 타만 항만, 철도 건설 계약 체결

- 러시아 오테크³⁾사는 타만 항만의 철도 건설 계약을 체결함
 - 크림반도에 위치한 타만(Taman) 항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철도 건설 계약을 올해 8월 말 체결하였으며, 건설은 2017년 말에 완료될 예정임
- 타만 항만 철도 건설은 ‘러시아 남부 교통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러시아 상임위원회의에서도 러시아 남부 항만과 철도간의 접근성 문제에 대해 논의함
 - ‘러시아 남부 교통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로는 타만 항만 철도건설, 석유 터미널, 벌크화물 터미널 건설 등이 있음
- 이번 철도 건설에는 약 3억 6,200만 루블⁴⁾이 투자될 예정이며, 총 3.5km의 철도가 건설될 예정임
 - 철도 건설이 완료된 후 연간 약 7,000만 톤의 물동량이 증가할 전망임

자료 : www.morvesti.ru, 2016.09.17

이하림 연구원
051-797-4758, harimy@kmi.re.kr

콜드체인 시장, ‘16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

- 세계 콜드체인 시장은 해운업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Drewry는 콜드체인 시장이 평균 2.5%의 성장률과 2020년에는 1억 2천만 톤에 도달할 것이라고 발표함
- 지난해 Drewry는 콜드체인 화물 물동량 분석에 의약품과 화훼부분을 포함했으며, 항공 운송에서 해상 운송으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힘
 - 이를 통해, 콜드체인 시장이 다양한 대상 상품이 존재하며,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고 발표함
- 콜드체인은 별도의 운송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콜드체인을 이용할 경우에는 원가가 상승하지만, 높은 운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운송 노력 대비 수익이 많다는 장점이 있음

자료 : www.logisticsmgmt.com, 2016.9.13.

김주혜 연구원
051-797-4779, joohye915@kmi.re.kr

3) ОТЕК, ООО"Объединенная Торгово-Экспедиционная Компания"

4) 약 62억 8,432만 원(2016년 9월 17일 기준), KEB 하나은행 외환포탈(검색일: 2016년 9월 17일)